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찬46/새31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진환 집사 2부/선상균 장로 3부/왕동원 장로 4부/이서원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선한 능력(편곡 김재훈)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스가랴 6:9-15 All together 다같이
4부/데살로니가전서 4:1-8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10) 스가랴 강해 그의 이름은 싸입니다
4부 Rev. Kyung Chul Park 박경철 목사
하나님의 뜻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비전, 예수 열방의 소망
- 헌금 특송(2,3부) Offering Song..... Kim Do Hyun 김도현 찬양사역자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전쟁에서 이기려면

To Win A War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지난주 '병거타고 달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말씀에 '사기충천'했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사기는 원래 군사용어입니다. 전쟁에 간군사들이 전투 의욕이 상승할 때, 사기가 올랐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병거 타고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사기가 올랐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투 의욕이 올랐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도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작을 피우는 것이 사탄입니다. 온 삶을 던져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더 크냐? 비교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눅 22:31)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수작은 오늘,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찾아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늘 대면해야 하는 문제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나 보다" 낙심하고 있을 때, '병거 타고 달려 오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면 다시 전투 의욕을 불태우며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기도 충천해 있어야 하지만, 군사들의 군기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기는 잔뜩 올라 있는데, 영적 전쟁의 현장을 다시 맞닥뜨리면 종종 패배의 쓴잔을 마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군기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가 올라가면 군기가 엉망이 되고, 군기가 바짝 서면, 사기는 죽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사기와 군기가 같이 올라 있어야 승리가 보장됩니다. '잘 해줘봤자 소용없다'라는 말, '원칙만 고수하다가 사람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사기와 군기가 균형을 잃어버린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사기와 군기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기가 올랐는데 현장에서 자주 실패를 경험했다면, 저는 신앙의 기본기 습득을 위해 제자훈련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골격을 잡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몸의 균형을 잃었다면 비틀어진 골격을 바로잡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군기 없이 사기만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면 그것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동 방법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톱 쏘면 기분이 좋아 사기가 오릅니다. 사기를 계속 올린다고 좋은 식당에서 계속 밥만 사주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자기 절제를 모르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기본이 없으면 몸의 균형을 잃고 비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들입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영적 분위기와 말씀의 훈련을 맘 흘려 받는 군기로 백전백승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십시오.

Last week, I gave a sermon on 'God coming on a chariot'. I received many feedbacks from congregation that their 'morale was uplifted'. Morale is originally a military term. When fighting spirit increases for soldiers at war, we say that the morale is high. High morale from seeing the image of God coming to help us on a chariot is not a state of stillness. It means that the fighting spirit has risen. Even today, Satan is scheming to make us fall every moment by moment. When disciples, who dedicated their lives to the Lord, gathered and compared who is greater, Jesus said, "Satan demanded to have you, that he might sift you like wheat." (Lu 22:31) It means that Satan's schemes will find you, the congregation that are reading this column today. The problems that our congregation faces all the time are never easy. Despite our best efforts, there are times when results are not as expected. We even fail at times. "It doesn't work for me no matter how much I try". When we are disappointed, if we can see the vision of 'God coming to us on a chariot', we can rise up again with fighting spirit.

One thing we must remember is that, although the victory at war requires high morale, soldiers must have the right discipline. Congregations' morale might be high, yet we often taste defeat when we run into spiritual battles. That is because we don't have the right discipline. Even when our morale is high, our discipline is messed up. When we have the right discipline, our morale may have fallen off a cliff and dies. However, in the spiritual battle, we must have high morale as well as right discipline to seal a victory. Sayings like 'what's the use trying', 'sticking to principles will lose people' are results from which morale and discipline are out of balance. Morale and discipline are required even in believer's life of faith.

Even though your morale may be high from hearing proclamation of the Word at worship, if you often experience failure in your place of life, then I encourage you to learn the basics by taking Discipleship Training. Framework of faith is accomplished by discipleship training. If your body has lost its balance, then it's important to reshape the frame of your body to be healthy again. Going to battlefield without discipline and only with morale is like having an advanced weapon and not knowing how to operate it.

Your morale gets lifted when you treat people to a meal. If you keep going to good restaurants to treat people in order to boost your morale, you may feel good, but loose self-control. If you don't have the basics of consistent exercise, you will lose your body's balance and instead gain weight. We are all soldiers in an invisible spiritual battlefield. Let's become holy warriors of hundred battles and hundred victories, with soaring spiritual morale and hard-earned discipline from training of the Word.

주일설교시리즈 **스가랴 강해**

RETURN & REBUILD (10)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그의 이름은 싹입니다

(속 6:9-15)

- 1.**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받으라 하십니까? 그 물건의 상징성을 참고 구절을 읽고 말씀하여 보십시오. (10-11절, 참고/ 사 60:4-6)
- 2.** 스가랴가 만들어야 할 면류관은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 또 하나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위해 "여호와와 전 안"에 두게 됩니다. "싹(the Branch)"은 누구일까요? (12-14절, 렘 23:5, 사 11:1)
- 3.** 싹(the branch)은 "여호와 전을 건축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13절) 이라 합니다. 그 이미지는 두 직분이 겹칩니다. 무슨 직분이 겹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참고구절을 읽고 답하십시오. (참고/ 시 110:2-4, 히 7:1-3)
- 4.**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13, 15절, 참고/ 마 16:18, 엡 2:21, 고후 6:16)
- 5.**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한다 했습니다 (15절). 교회가 지향해야할 선교사역의 비전을 같이 보며 기도하십시오. (참고/ 엡 2:17, 21-22, 계 7:9-10)

적용하기



■ 적용찬양: 비전, 예수 열방의 소망

유아부 예배

하나님 사랑 하는 마음을 들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매주 주일 2부(오전 9시)와 3부(오전 11시)에 할렐루야 채플에서는 3살부터 5살까지의 유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예배실 앞에 도착하면 유아부 선생님들께서 따스한 웃음과 인사로 맞이해 주십니다. TA 선생님들,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놀다가 Clean up 노래가 흘러나오면 장난감을 정리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전도사님께서 나오시면 환영 인사와 함께 질문하십니다. "교회에 들고 와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유아부 친구들은 너도나도 즐겁게 외치며 대답합니다. "성경책! 헌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금송이 흘러나오면 각자 준비한 헌금을 두 손 모아 소중히 드리고, 선생님께서 대표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 드리고 나면 즐거운 찬양 시간이 시작됩니다. TA 선생님들과 찬양팀 친구들이 하는 율동에 맞추어 신나는 목소리와 귀여운 율동으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시간이 끝나고 모두 자리에 앉으면 Bible Boy가 오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강단에 나와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로 예배에 참여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설교 후,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면 기도손 모아 예쁜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유아부 친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주기도문과 말씀 암송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각자 반으로 가서 크래프트 활동을 하며 그날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면 각자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예배 준비로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 아이들을 도와주는 TA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유아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예배의 기쁨을 아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에스터 자매(교사)



성례 사역팀

1. 사역팀에 대해 알려주세요.

성례팀은 우리 교회의 성찬식과 세례식을 준비하고 진행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2. 성찬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일 년에 4-5차례 진행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경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례팀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할 때 지난 십 수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일하시는 권사님들께서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준비하는 것처럼 온갖 정성과 깊은 묵상, 그리고 신중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준비하십니다. 성찬식 당일엔 장로님들께서 분병과 분잔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심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됨을 묵상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세례 참여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례식은 일 년에 2차례 진행되는 성인 세례, 입교와 학습이 있고 유아세례는 담임목사님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유아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례는 각 목장 목사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아세례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례식은 소정의 교육을 마치시고 문답을 하셔야 합니다. 세례자 교육과 문답은 예배 담당 목사님과 각 목장 목사님께서 진행하시고 세례팀은 세례자들의 예배 좌석을 준비하고 당일 등단하시는 것을 도우며 세례자들의 선물 준비와 세례자를 축하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세례식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세례식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성도들의 고백과 거듭남을 베델 교회 공동체는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독후감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인생의 블루프린트

"기차가 선로 위에서 가장 자유롭고 빠르게 달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십계명 위에서 우리는 가장 자유롭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십계명에 대한 생각, 자유를 구속하고 복음과 상반된다는 생각을 수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십계명을 주셨던 시기,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때에 주셨다는 것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법을 지킬 기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기회, 우리가 함께 사는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과 치유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 기회라는 것입니다. 속박이 아니라 자유, 억제가 아니라 풍성함, 거리감이 아니라 친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7)"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걸어다니는 십계명으로, 집 안에 걸어놓고 삶의 지혜로 내일을 보는 로드맵으로 삼게 되기를 바라며 소제목 의미를 묵상합니다. '독점계약', '질투', '명예', '축하'라는 제목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통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인간도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도 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새언약,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가능케 하셨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설득', '형상', '여자', '공짜', '증인', '비교'라는 제목의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는 명령이 아닌 설득으로 이웃 사랑을 가로막는 근원적인 죄, 비교를 일으키는 죄로부터의 자유는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가정을 지키고, 이웃 사

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천국의 본질은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과 세상의 벽을 계산하지 않고 자유롭게 꿈꾸는 아이들처럼 새로운 꿈,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뛰어 올라 다시 선로에서 최고 속력을 달라는 기차'가 되는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김규현 집사



니카라과 선교

초록의 황무지를 품고



니카라과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내려놓음과 비움의 미학을 몸소 깨닫게 하신 일주일이었습니다. 첫날 입국하면서 준비해 간 물품들의 일부를 빼앗겼지만, 준비해 간 모든 것을 니카라과 땅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심기기를 바라는 11명의 바람이 환상의 팀워크와 90도를 넘나드는 고온다습의 날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사역을 향해 한마음으로 매일 달려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함과 그것을 전하는 순수하고 열정 있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에서, 노쇠하신 어르신들과 따뜻한 포옹 속에, 청년들과 수줍은 악수 속에서 작은 예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그 땅에 젊음을 묻고 22개의 지교회회를 개척하신 박우석 선교사님 부부께서 일구신 삶의 간증의 현장인 교회회에서 이루어진 저희의 짧은 수고가 또 다른 씨 뿌림이 되길 기대하며 아쉬움 속에 떠나왔습니다. 몸은 어느새 베렐에 왔지만 제 마음은 초록의 아름다운 나라, 니카라과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박성혜 권사

멕시코와 온두라스 등 중남미로 세 번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나름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단기 선교였지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선교지는 어떤 환경일지, 여

러 가지 걱정이 가득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선교지에서 경험하게 될 은혜를 기대하며 니카라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니카라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가져간 사역에 필요한 도구들, 의약품 등을 세관에서 뺏기게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선교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교 물품들이 있어서 준비한 사역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다른 교회를 섬기며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니카라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땅이 번영하기를, 사랑이 넘치기를, 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선교는 엄마와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고 행복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큰 은혜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유진 자매

BYM 온두라스 선교 훈련

온두라스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반까지 베델 비전채플에서는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는 훈련으로 한창입니다. 어른 11명과 BYM 중등부 학생 16명과 고등부 학생 2명, 총 29명이 함께 떠나는 온두라스 선교(7월 23일-29일)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닷새의 사역 기간 중 3일 동안 펼쳐질 VBS를 주요 사역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일 오전에는 선교지의 공립학교를 빌려 1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VBS를 3일간 진행할 계획입니

다. 그리고 오후에는 고산 지방으로 올라가서 총 3개의 마을을 방문하여 각각 50-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일 VBS를 진행하게 되는 숨 가쁜 일정입니다.

선교와 성경 말씀에 대한 영적인 훈련과 더불어, 험한 선교지의 지형과 날씨에 지치지 않기 위해 매주 체력 훈련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 과정이 쉽

지 않지만, 특히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스페인어로 모든 사역을 진행하기로 하여 더욱 도전 됩니다. VBS의 Gospel station에서 복음을 증거할 성경 구절을 모두 스페인어로 외우고, 스페인어로 연극과 인형극을 준비하고, 함께 배우고 부를 찬양까지도 모두 스페인어로 외우며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친근하게 온두라스 아이들의 마음에 전하고

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주일에는 2, 3부 예배 후 펀드레이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선교팀원들이 손수 레몬을 수도 없이 짜서 시원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달콤한 쿠키를 밤늦게까지 구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넘치게 후원해 주셔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팀 모두의 건강, 지역 상황, 안전, 날씨, 오가는 일정 등 선교의 모든 단계를 지켜 보호하시기를, 특히 어린 자녀로 구성된 선교팀원들이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여 온두라스 선교지에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며 오래 남을 은혜가 되는 사역을 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천승현 집사

내 신앙의 자서전

나의 영적 GPS

박복희 권사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살아왔지만,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 다녔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대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인품과 지식,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천이란 이름으로 교회에 다니고 교회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지만 성육신이나 부활등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 제자반 훈련받을때 성경 통독이 과제로 되어 있어서 매일 일정한 양의 성경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어느날 "하나님, 말씀을 펴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의 영을 깨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던 중 불현듯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일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서 한동안 소리 내어 울었던 뜨거운 영적 경험을 한 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다. 또 몇 년 전 어느 토요일 햄시바 예배가 끝난 후 혼자 남아서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내 힘과 이성이 아닌 어떤 힘이 내 어눌한 입술을 주장하시며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느낀 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않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니 창조론도 성육신도 부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책임져 정결케 하시고 구원과 영생까지 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그 당시 담당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 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지금은 두 셀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냄비 속의 물처럼 계속 불을 때지 않으면 식고 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내버려 두면 굳어져 버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인생의 숙절없음을 경험하며 마음을 어디에 두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굳어지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 저는 날마다 QT 시간을 지키고 묵상합니다. 아침마다 QT로 영을 깨우고 성령의 불씨를 구하며 가슴 뛰는 설렘으로 하루를 엽니다. QT는 나의 영적 GPS입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헝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베델 일본어 예배 10주년 감사예배

지역광고

찬양사역자 김도현 초청 콘서트

12년 전 소수의 일본인 성도가 모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한 '일어 성경 공부' 모임은 2년 뒤인 2013년 4월, '베델 일본어 예배'의 이름으로 첫 일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창립 10주년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방의 언어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팬데믹과 같은 여러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이 예배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 유년기를 지나 10대의 소년기로 접어든 일본어 예배로서, 10대에 걸맞은 키와 품으로 자라나 더 많은 일본인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손님들의 축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의 찬양은 첫 소절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가 마음에 더 크게 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뿜겨져지는 기분이 들게할 만큼 힘겨운 세상에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담은 노랫말이 주는 '위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못지 않게 '예수 예수', '샬롬'과 같이 수많은 이들이 듣고 부르며 감동했던 찬양을 만든 김도현님의 찬양사역자로 30여년 시간들에 대한 고백을 그가 만든 찬양과 함께 베델 교회 많은 성도들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 일시: 6월 25일(주일) 오후 1시 15분
- ▶ 장소: 임마누엘 채플
- ▶ 문의: 손용주 목사 (702)449-2627

- ▶ 일시: 6월 30일(금) 오후 7시 30분
- ▶ 장소: 본당
- ▶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월)	7/2:	①부-김학남	②부-윤주원	③부-이국선	④부-이효민
	7/9:	①부-마상오	②부-이 청	③부-곽태일	④부-권앤디
	7/16:	①부-박관수	②부-김건성	③부-권조원	④부-채은진

헝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7월) | 7/1: 김윤근 7/8: 김정우B 7/15: 김정범 7/22: 김정욱

강단꽃(6,7월) | 6/25: 강재형, 김진희, 황순현 7/2: 림학철, 박세환, 조궁 7/9: 김성희, 이 청 7/16: 김창남, 정민주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장미순(한외과), 간호사-이혜경
다음주 | 의사-한우광(한외과), 간호사-박필연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영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배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2,3부 예배에 '성령이 오셨네', '샬롬', '예수 예수' 등의 명곡을 작곡한 김도현 찬양사역자께서 특송을 해주십니다. 더불어 오는 금요일(30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특별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찬양을 통하여 은혜받으시길 바랍니다. (7면 참고)

◆ **베델 수요일예배** 매주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은혜로 드러지는 베델수요일예배가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러집니다. 이번 주는 김홍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헵시바 일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가 곧 선교입니다. 헵시바 교회에 일천 명이 모여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Always be there!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6시, 본당

◆ **제10회 유명, 야훼 및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3년 베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아래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일(목)~6월 30일(금)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scholarship@bkc.org
*장학 특별헌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시 '장학 헌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해 주시면 됩니다.

◆ **베델 일본어 예배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갈 새 걸음의 비전 안에서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7면 참고)
일시/장소: 6월 25일(주일) 오후 1시 15분, 임마누엘 채플

◆ **주차 안내** 비전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전센터 뒷편 영어 회중(BGC) 주차장과 중국 교회 쪽에 교회학교 자녀들을 Drop off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서 꼭 비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K-5 VBS**가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 **제7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금년 신학강좌는 "장애인 신학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장애 속에 깃든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섭리를 발견해 수많은 장애인에게 소망을 주고, 교회가 각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9시 30분 (2 강좌)
7월 15일(토) 오전 6시-오후 12시 (4 강좌 및 Q&A)
강사: 이재서 교수(총신 교수/총장 역임, 현 세계밀알협회 총재)
정승원 교수(총신 교수/부총장 역임, 현 세계밀알협회 이사)
김정기 목사(총신 대학/신대원, 북가주 밀알선교단 단장)
장영준 목사(침신, 시애틀 밀알선교단 단장, 미주밀알선교단 부총장)

◆ **교회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 유년부 주일 예배 교사와 소망부 VBS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유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한어 혹은 영어 교사,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소망부 섬김/문의: VBS,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코트야드에서 Sign up해주세요.

◆ **베델콰이어 단원 모집** 1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섬기는 베델콰이어와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중 연습은 금요일 저녁에 실시됩니다. 더욱 풍성하고 힘 있는 콰이어가 되도록 많은 성도님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형직 목사 (909)964-2537, 오은옥 권사 (714)615-7096

◆ **BYM 중고등부 "Overflow" 여름 수련회** 올해 영어 중등부와 고등부는 연합으로 수련회에 가게 됩니다. Sign up은 오늘(25일)까지 받으며, 부서 카카오톡으로 공지 된 form으로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8월 7일(월)-10일(목), Forest Home Christian Camp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Sarah Lee 인턴 (949)402-7049

◆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안내** 매일 발송되는 아침 영상 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이 6월 26일부터 오전 12시 10분에 발송됩니다.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BCA) 입학 안내부스** 기독교 고전교육을 통해 탁월한 학문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로 키우는 BCA를 소개하기 위한 안내 부스가 3부 예배 후 비전센터 앞에 준비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입학대상: 킨더-7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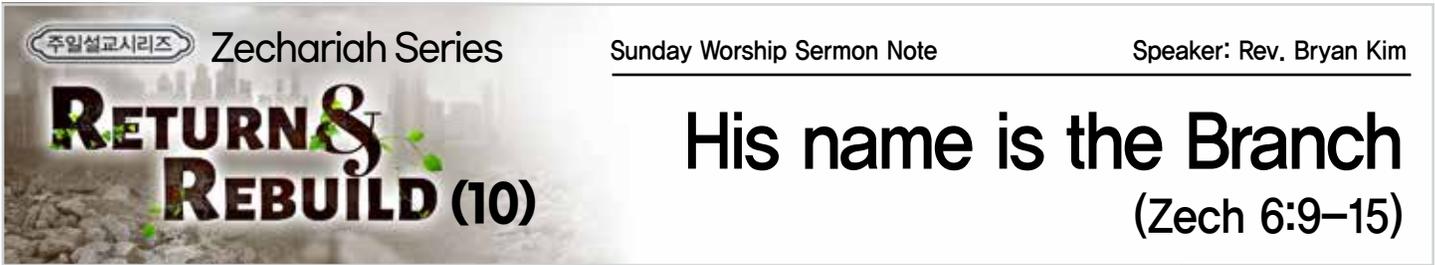
◆ **위로해 주세요.**
-故 이창희 성도님(이행자 성도의 남편)이 6월 5일(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故 이정순 권사님(한중석 집사의 모친, 한자영 권사의 시모)께서 6월 20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1. Prophet Zechariah is going to whose house, and to receive what? After reading the reference verses, tell us the symbolism of these items. (v.10-11, Ref: Is 60:4-6)

2. One of the crowns he is to make is for high priest Joshua. Another one is for the man whose name is Branch, and it is to be left "in the temple of the Lord". Who is "the Branch"? (v.12-14, Jer 23:5, Is 11:1)

3. The Branch will "build the temple of the Lord...will sit and rule on his throne."(v.13) This image overlaps two positions.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answer which positions overlap and its meaning. (Ref: Ps 110:2-4, Heb 7:1-3)

4. How is Jesus, who is our King and High Priest, building the temple of the Lord? (v.13, 15, Ref: Mat 16:18, Eph 2:21, 2 Co 6:16)

5. "Those who are far away will come and help to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v.15) Let's look together at the vision of mission work that the church should pursue and pray. (Ref: Eph 2:17, 21-22, Rev 7:9-10)

Apply to Life

